

# 개신교 이번엔 “수덕사 무너져라”

### C목사, ‘수덕사 무너지고 중은 개종...’ 기와들고 촬영

부처님 정각성지 인도 부다가야에서 개신교 청년들의 땅밋기 기도를 자행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직 목사가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땅밋기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남 예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N교회 C담임목사는 지난해 4월 19일 수덕사에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사진에는 기와에 ‘마태복음 24:14’와 교회 십자가를 그리고 ‘수덕사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이다. 이곳에 중들은 주님 안으로 돌아올지이다’라고 썼다. 문제가 불거지자 C목사는 현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황이다.

C목사의 이 같은 행위는 사실상 ‘땅밋기’ 기도에 해당된다. 불교의 기와불사를 이용해 ‘사찰이 무너지길’ 기원했기 때문이다.

2010년 창안인도자학교의 봉은사 ‘땅밋기’ 동영상로 알려진 선교 방식은 성경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가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종교 사원이나 성지에서 행해지는 이 같은 선교 행위는 매우 배타적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

기와에 적혀있는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도 개신교가 선교의 당위성을 찾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경구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작년 5월부터 SNS에 버젓이 게재 “의도성 없이 재미로... 사과하겠다”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약 없이 오리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C목사는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될지 몰랐고, 의도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C목사는 본지와외의 통화에서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쫓 김포에 청년들이 이곳으로 놀러왔고 수덕사에도 관광객들 많이 왔다가 “그중 한 청년이 사찰 기와 불사



현직 목사가 자신의 SNS에 올려 문제가 된 사진. 지난해 4월 촬영해 게재한 것으로 수덕사가 무너지길 기원하고 있다.

접수처에 가서 이 같은 문구를 써서 가지고 왔고, 돌아가면서 촬영했다”고 정황을 밝혔다. 물의를 빚은 소재의 사진을 찍고 게재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 재미삼아 한 일”이라고 다소 황당한 해명을 했다.

이어 “직접 작성하지 않고 의도성도 없

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면서 “수덕사에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인근 지역 목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수덕사 사부대중은 불쾌감과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수덕사 중앙종회의원 정목 스님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 비록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그냥 지나가서는 안된다”면서 “일부 개신교 신자들의 배타적 ‘땅밋기’ 행위는 단순히 수덕사 한 곳의 문제 아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의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덕사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뒤늦게 알려진 수덕사 땅밋기에 대해 해당 교단에 공문을 보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키로 했다.

조계종 중평위 관계자는 “이 같은 훼손 행위가 뒤늦게 알려지는데 대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해당 교단에 공문을 보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운사의 아름다운 세계’

혜도 스님 사진전 9월 18일까지

세계적 제작가 특색있는 아름다움을 뽐내는 고택 선운사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있는 혜도스님이 첫 번째 전시회를 개최했다. ‘선운사의 세계’라는 주제로 선운사 만세루에서 열리고 있는 혜도스님 사진전시는 선운산의 아름다운 모습과 자연과 어우러진 선운사의 전각을 특유의 빛을 이용한 촬영기법으로 선보이고 있다. 혜도 스님은 “특별히 사진기를 들고 촬영해 왔다”며 “그동안 촬영한 사진을 통해 선운사의 진면목을 보고 선운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선운사는 렌즈를 통해 본 선운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앵글에 담아 선운사를 찾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솔천의 사계, 단풍, 일주문과 꽃무릇, 설경 등 계절별 선운사의 모습을 스님의 세심한 시각으로 담아내고 있다. 또 세월호 희생자들의 귀환을 바라는 선운사 대중들의 모습, 대중운력 모습, 예불 등 스님들의 일상을 담은 작품 33점이 전시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9월 18일까지 선운사 만세루에서 전시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남원 선원사, 종각 및 설법전 낙성식

남원 선원사(주지 운전)는 8월 17일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강동원 국회의원, 이환주 남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각 및 설법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운전 스님은 인사말에서 “예로부터 선원사의 종소리는 남원8경중의 하나였다”며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건립하게 된 설법전을 대중 선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봉사하는 삶이 바로 부처의 삶이다”며 “짜장 스님의 봉사정신을 본받아 이타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법회 후에는 백제 가야금 연주단, 무용가 한영애씨의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 짜장콘서트도 개최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 당부했다. 법회 후에는 백제 가야금 연주단, 무용가 한영애씨의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 짜장콘서트도 개최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광주 중심사 한탑 스님 초청법회

광주 중심사(주지 연광)는 8월 19일 경내 취백부에서 한탑스님 초청 법회를 개최했다. ‘2014명사초청법회-무등(無等)에서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한탑 스님(사진)은 ‘달마대사 사행관’에 대한 강연을 했다.

한탑 스님은 “깨달음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치(理致)로 되는 길과 행(行)으로 되는 것이다”라며, “이치로 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참 모습으로 돌아가 이치를 깨달아 분별할 것이 없이 적언무위(寂然無爲)하게 되는 것이다. 행으로 하는 것은 보원행(報怨行) 원망이 없는 행, 수연행(隨緣行) 인연을 따르는 행, 무소구행(無所求行) 구하는 생각 말리는 행, 청법행(稱法行) 법에 맞추게 하려는 행”이라고 말했다.

한탑 스님은 고려대 경제학을 전공한



후 출가하여 원각회와 불광법회 초대회장과 금산사, 안국사 등에서 상임법사를 지냈으며, 담양 정토사 문수수법회 회주를 맡고 있다. 중심사 명사초청법회는 9월 김재성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 10월 자현스님(조계종교수이사리), 11월 명법스님(조계종교수이사리), 12월 혜민스님(미국험프셔교수) 등의 법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독서하고 싶으면 사찰로 오세요”

### 선덕사 작은도서관 효과 토크, 광주 408곳 중 불교계 2곳 불과

최근 광주지역에서 지역주민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사찰의 작은도서관이 화제다.

광주 선덕사는 2013년 12월 경내에 작은도서관을 성지해 운영하고 있다.

마을사랑방과 함께 공동운영되는 선덕사 작은 도서관은 부모 마인드코칭프로그램, 휴놀이, 문화 강좌 등이 열려 젊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으면서 신도 구성에도 변화가 이는 것이 특징이다.

선덕사 주지 원목 스님은 “지난해 작은도서관 설치 이후 사찰에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사찰을 찾고 있다”며 작은 도서관의 효과를 말했다. 이어 스님은 “도서관 봉사자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젊은 신도들의 조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덕사 작은도서관은 도서 정비를 끝내고 도서 대출을 시작하고 있다. 운영비의 경우에는 구청으로부터 400만원을 지원받아 부담도 덜었다.

선덕사 측은 예산보다 효과가 크자 도서 업무 외에도 다양한 어린이·청소년문화



광주 선덕사 작은도서관. 사찰측은 이용자들이 신도로 등록하는 등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행사를 준비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처럼 작은도서관 사업의 효과가 크지만 이에 대한 불교계의 참여는 미흡하다. 광주시의 작은도서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은 현재 408개 운영 중으로 이중 97개가 종교단체에서 설치한 곳이다. 하지만 불교계의 작은도서관은 선덕사와 아시아밖센터 2곳에 불과하다.

주요 이용자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포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이에 대한 사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소재해 누구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소규모 도서관으로 설립과 운영이 쉽다. 시설기준 건물면적 33㎡이상 공간에 열람석 6석 이상으로 자료는 1000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후 관할시·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시설비와 운영비는 관할구청에서 지원된다.

광주시는 작은도서관을 500개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인구 1000세대 1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작은도서관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자료선정과 프로그램 기획 등 교육을 연 3회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자료는 광주시 작은도서관(www.gwangju.s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전주박물관,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전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8월 19일부터 올해말까지 익산 왕궁리 5층석탑 사리장엄구(국보 123호)를 특별전시한다.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된 미술공예실에는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남원 지역의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등 40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은판에 금강경을 새겨 금도금한 금강경판과 보관함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이밖에 일제 강점기 일본에 반출됐다 환수된 전주 낙수정 범종(보물 1325호)도 함께 전시돼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청자 가마로 알려진 진안 도동리 청자가마를 비롯해 전북지역 청자 요지 출토품을 전시해 전북의 청자 발달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진정한 학예사는 “익산 왕궁리 사리장엄구는 미륵사지 사리장엄 이후 조성된 사리장엄구이다”며 “그동안 흩어져 전시되고 있던 유물을 미술공예실의 단장과 함께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금강경판 19매와 보관함도 함께 전시하고 있어 많은 불자들의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불경 라디오 成佛

##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x 세로 6cm x 두께 2cm + 4GB 불경SD카드 + 이어폰 + 1200AM 배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배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www.hyunbulshop.com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협약)

□ 정현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화합의 기도
3. 가나 평안을 위한 기도
4. 밤마 귀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할 기도를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정현 염불
10. 자비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반심으로 왔다
13. 사랑을 쓸때는
14. 여름 별레는 겨울이 있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날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눈을 찢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전인 1
22. 광명전인 2
23. 개경계
24. 지경공덕본
25. 예불문
26. 이산 해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한계
30. 법성계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정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발무 원경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찰서원
43. 신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길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계
55. 이상정명본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